

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안

(김익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8. 5. 20

발 의 자 : 김익수 · 김도문 · 김태근
박순이 · 우진석 · 장세만
정근수(7인)

1. 주 문

-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“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”로 명기할 방침을 세우고 자국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공표한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며 독도침탈의 재 시도라 간주됨.
- 이에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도발행위를 질책하고, 우리국민에 대하여 진실한 사과와 독도침략 야욕 포기를 촉구 하고자함.

2. 제 안 이 유

-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“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”라고 명기하여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, 독도영유권 주장을 기정 사실화하여 독도를 침탈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됨.
-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규탄하고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40만 구미시민의 뜻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분쇄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붙임 결의문

결 의 문

-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-

- 우리겨레의 소중한 강토인 우리 독도는 배달민족의 숨결과 함께 면면히 이어져온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표상이다
-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독도가 우리의 국토임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왜곡하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, 심지어 지난 2005년 시마네 현을 앞세워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선포하고 영유권 반환운동과 기념행사를 벌이는 등 노골적으로 독도침탈 야욕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
-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주권을 빼앗고 36년간 우리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도탄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시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, 교과서왜곡, 각료의 독도망언 등 망발을 계속하고 있으며
- 그것도 모자라 일본정부는 일본 중학교과서의 새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“독도는 일본 땅”으로 명기할 방침을 세우고 자국 중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공표하였다.
- 이는 불과 한달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미래를 보고 가자고 약속해놓고 뒤통수를 치는 가증스러운 행위로서 우리국민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.

-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며 영토침탈의 재시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,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제 군국주의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.
-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시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
- 1.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표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자국 청소년들에게 “독도는 한국 땅”이라고 바르게 가르치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도록 하라
- 1. 일본정부는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
- 1.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의례적인 항의나 시정요구 등 하나마나한 외교적인 수사는 그만두고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독도사수 의지를 전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라.
- 1.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시작의 땅이며 우리겨레의 자존심인 독도의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40만 시민과 함께 결의한다.

2008년 5월 21일

구미시의회 의원일동